

이광환 감독 “손녀들과 야구하니 행복해요”

선수들 불편함 호소한 숙소 변경 등 배려와 존중으로 여자대표팀 이끌어 선수들과 나이차 많아도 소탈 리더십

한국여자야구대표팀을 이끄는 이광환(68·사진) 감독은 한국야구의 대표적인 노장(老將)이다. 2017 WBC 사령탑으로 선임된 김인식(69) 감독과 견주어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다. 그런 이 감독에게 올해 특별하고도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다. 한국땅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여자야구월드컵인 'LG 후원 WBSC(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2016 여자야구월드컵'에서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된 것이다.

그간 이 감독은 OB와 한화, LG 등 프로팀은 물론 서울대 야구부에서 술한 남자 선수들을 이끌었지만, 여자 선수들을 총괄한 경험은 거의 없다. 그러나 초로의 신사는 여자선수들의 성격과 개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표팀을 2라운드까지 올려놓았다.

이 감독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여자선수들의 섬세함이다.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선수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행을 조심하고 있다는 게 이 감독의 설명이다. 대회를 치르는 동안에도 관심과 배려는 계속됐다. 실제로 대표팀이 대회 초반 머물던 숙소가 여러 가지 문제로 미흡하자 선수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이 감독은 슈퍼라운드를 하루 앞둔 6일 숙소를 옮기며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에 신경을 기울였다.

선수들과 많은 나이차도 소탈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중이다. 이 감



독은 “손녀들과 야구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진다는 생각으로 대회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수들에게 밝게 웃으라고 항상 애기한다. 야구하면서 웃는 모습이 가장 예쁘다는 말을 자주 남기며 선수들을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감독의 환한 표정에서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감독은 슈퍼라운드 1승을 목표로 대회 종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비록 7일 대만에 콜드패로 졌지만, 8일 호주전과 9일 캐나다전 중에서 한 경기를 반드시 잡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다. 노장의 ‘마지막 봉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기장(부산) | 고훈준 기자 shutout@donga.com



한국여자야구대표팀이 7일 부산 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에서 열린 2016 여자야구월드컵 대만과 슈퍼라운드 1차전에서 1-11로 콜드게임 패했다. 3회말 1사 2루서 나온 내야 땅볼 때 대만 2루주자 치에 유(오른쪽)가 3루에서 세이프되고 있다. 기장(부산) | 김홍준 기자 won@donga.com

“투수 싸움에서 밀렸다” 여자야구 콜드게임패

슈퍼라운드 1차전 대만에 1-11...오늘 호주전



한국여자야구대표팀이 슈퍼라운드 첫 경기에서 콜드게임(Called Game) 패배를 당했다. 한국은 7일 부산 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에서 열린 'LG 후원 WBSC(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2016 여자야구월드컵' 슈퍼라운드 대만과 1차전에서 선발 배유가(0.1이닝 7실점 6자책)가 무너진 끝에 1-11로 졌다. 정식이닝은 7회까지 진행하지만 대회 규정상 5회와 6회 10점차 이상이 벌어질 경우 콜드게임 패배를 적용함에 따라 한국은 5회 만에 경기를 마감해야했다.

1회 대량실점이 뼈아픈 경기였다. 한국 선발로 나선 재일교포 귀화선수 배유가는 1회말 볼넷 3개와 안타 4개를 잇달아 허용하며 7점을 헌납했다. 8번타자까지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는 데 그치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 결국 배유가는 공을 조명등에 게 넣기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반격도 있었다. 2회까지 무안타로 고전하던 한국은 3회 8번 석은정이 안타로 출루한데 이어 상대 패스트볼을 엮어 3루를 밟았다. 이어 1번 이예지가 중전 적시타를 날리고 1점을 따라붙였다.

그러나 경기를 일찌감치 끝내려는 대만의 공세는 4회에도 계속됐다. 2회부터 올라온 한국의 세 번째 투수 허진미는 첫 두 이닝을 무실점으로 처리했지만 4회 들어 안타 4개를 내주고 4점을 더 허용했다. 한국은 5회초 7번 허진미를 시작으로 8번 석은정과 9번 이보현이 모두 범타로 물러나며 1차전을 조기마감했다.

이광환 감독은 경기 후 “투수 싸움에서 밀렸다. 상대는 직구 최고구속이 115km에 이르는 반면, 우리는 100km대를 겨우 넘긴다. 내일 강정희가 합류하는 만큼 투수진을 총동원해 슈퍼라운드 목표인 1승을 거두겠다”고 전했다.

슈퍼라운드 1차전을 내준 한국은 8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호주와 같은 장소에서 2차전을 맞는다. 호주전 선발은 고교생 투수 김라경(16·계룡고)이 나선다.

기장(부산) | 고훈준 기자

골프

‘박성현, 한 시즌 최다 상금 신기록’ 당연하지

오늘부터 KLPGA챔피언십 출전 컷 통과하면 순위 상관없이 경신

박성현(23·넵스)이 가는 길이 한국 여자골프의 새 역사가 되고 있다. 한화금융클래식에서 올 시즌 7승째를 거둔 박성현은 8일부터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장 하늘코스(파 72)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이수그림 KLPGA챔피언십(총상금 8억원)에서 한 시즌 최다 상금 돌파라는 기록 달성에 나선다. 앞선 대회까지 12억591만원의 상금을 획득해, 이번 대회에서 컷만

통과해도 2014년 김효주(21·롯데)가 세운 12억897만8590원을 뛰어넘는다. 본선 진출에 성공하면 최소 상금 4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어 순위에 상관없이 한 시즌 최다 상금을 돌파한다. 60명 이상이 컷을 통과할 경우 상금이 400만원보다 적어지지만 기록 경신에는 문제가 없다. 박성현의 올해 성적으로 볼 때 컷 통과를 걱정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컷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보다 우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 박성현은 올해 15경기에 출전해 7승을 거뒀다. 컷 탈락은 없었고 2차례 기권(BMW레이디스챔피언십·하이원리조트여자오픈)만

있었다.

한 시즌 최다승 기록도 사정권이 다. KLPGA 투어 역대 한 시즌 최다승 기록은 2008년 신지애(28)의 9승이다. 2승만 더 추가하면 타이, 3승이면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박성현은 “시즌 첫 메이저 대회였던 한국여자오픈에서 아쉽게 준우승을 했다. 생애 첫 우승이 메이저대회였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르다. 철저히 준비해서 우승하고 싶다”고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올 시즌 마음만 먹으면 뭐든 이뤄가는 박성현이기에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골프장 입장때 내는 개별소비세 폐지해야”

강효상 의원, 법안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골프장 입장시 골퍼들이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다.

강효상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골프장 관련 개별소비세 폐지’ 기자회견 열고 “20여 년의 세월 동안 골퍼에 부당하게 덧씌워진 ‘귀족 스포츠’의 오명을 벗어야 할 때다. 골퍼장을 사치성 위락시설로 분류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지난 여름 폭염에 지쳐 있던 국민의 마음에 박인비 선수의 금메달은 커다란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다. 이에 앞서 1998년 IMF 외환위기 때는 박세리가 맨발투혼을 펼치며 한민족의 끈기를 전 세계에 알렸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골프강국이 됐고, 골프는 오늘날 국민 스포츠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 프로골퍼 박세리(왼쪽부터) 등이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자 유망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골프장이 여전히 부자들만을 위한 사치성 오락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어 골프장 입장행위에 중과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골

프를 국민스포츠로 명예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투전기장(마천공)의 경우 사행성 오락시설로서 그 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과세의 당위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골프장은 건전한 운동시설로 사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골프장을 카지노 등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다른 스포츠와 부당한 차별이며,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일조함으로써 골프의 대중화 및 골프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국민들이 부담 없이 생활체육으로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로써 접대용 스포츠라는 이미지를 벗고 장기적으로 골프장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김시우, 도이치뱅크 공동15위 PGA PO 4차전까지 출전 확보

남자골프의 새 에이스 김시우(21·CJ대한통운·사진)의 질주가 거침없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2차전 도이치뱅크 챔피언십(총상금 850만 달러)에서 공동 15위에 오르며 사실상 4차전(투어챔피언십)까지 출전 티켓을 확보했다.

김시우는 6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 주 노턴의 TPC보스턴에서 끝난 도이치뱅크 챔피언십 종료 기준으로 페덱스랭킹을 18위까지 끌어올리면서, 4차전 투어챔피언십 진출이 유력해졌다. 페덱스 포인트 1596점을 확보해 최종전 진출 예상 포인트 1550점을 훌쩍 뛰어 넘었다.

10일부터 열리는 3차전 BMW챔피언십은 70명만 출전한다. 컷오프가 없어 김시우가 풀쳐를 해도 투어챔피언십 진출 최하 순위인 30위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페덱스 순위는 각종 대회의 출전 자격을 주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이미 3주 전 윈덤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하며 2년 동안 PGA 투어 카드를 받아낸 시드 걱정은 없다. 그러나 마스터스와 PGA챔피언십을 제외하고 US오픈과 디오픈 출전권은 받지 못했다. 김시우가 투어챔피언십 진출을 새로운 목표로 세웠던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상 투어챔피언십 진출을 확정지은 만큼 남은 2장의 메이저 직행 티켓도 모두 받아낼 수 있게 됐다.

남은 목표는 세계랭킹 50위 진입이다. 김시우는 6일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처음 60위 이내 진입에 성공했다. 지난 주 62위에서 59위로 3계단 끌어올렸다. 가능성 또한 높다. 앞으로 출전할 대회는 컷오프가 없는 특급대회들이 줄을 잇고 있다. 플레이오프 3차전과 4차전은 물론 10월부터 시작되는 2016~2017시즌 CIMB클래식과 HSBC챔피언스는 모두 컷오프가 없다. 이제부터는 즐기면서 남은 목표를 이뤄갈 계획이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박성현이 한 시즌 최다 상금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8일부터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장 하늘코스에서 열리는 이수그림 KLPGA챔피언십에서 최소 본선만 진출해도 신기록을 달성할 수 있다. 기존의 최다 상금기록 보유자는 김효주였다. 사진제공 | KLPGA